

# 신어의 단어 형성법 연구\*

- 2002 · 2003-2004 신어를 대상으로 -

전명미\*\*최동주\*\*\*

- I. 머리말
- II. 신어의 분류 체계
  - 1. 어종에 따른 분류
  - 2. 형성과정에 따른 분류
  - 3. 내적구성에 따른 분류
- III. 신어의 단어형성법적 특징
  - 1. 신어의 어종
  - 2. 신어의 형성과정
  - 3. 신어의 내적구성
- IV. 맺음말

## 【요 약】

본고의 목적은 현대국어 ‘신어’의 단어형성법적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신어의 어종별 유형은 고유어·한자어·외래어·혼종어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신어의 형성과정은 기존 형식

---

\* 본고를 세밀히 검토하고 조언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영남대학교 박사과정

\*\*\* 영남대학교 교수

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신생’과 ‘차용’)와 기존형식을 이용하는 경우(‘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변형시킨 경우’, ‘파생’, ‘합성’)로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신어의 내적구성은 단일어와 파생어, 합성어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장 생산적인 어종은 외래어이며, 합성법이 가장 생산적인 형성 절차이고, 합성어의 빈도가 가장 높다. 2) 외래어는 주로 영어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한국어 화자들이 기존 외래어를 이용하여 만들어 낸 신어가 전체 외래어의 45% 이상을 차지한다. 3) 혼종어까지 고려하면 한자어 역시 외래어 못지않게 생산적이다. 4) 합성 과정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일이 가장 많으며, 비통사적합성어도 있다. 5) 가장 생산성이 높은 접사는 ‘-족(族)’이며, 한자어 접사에 의한 파생이 압도적으로 많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2002~2004년 <신어> 자료집의 ‘신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외래어의 경우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추적·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국어의 ‘신어’를 대상으로 어종, 형성과정, 그리고 내적구성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현대국어 신어의 단어형성법적 특징을 살피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2002년 <신어>, 2003년 <신어>, 2004년 <신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sup>1)</sup>

1) 본고의 대상인 국립국어원 자료집의 ‘신어’는 ‘새로 생긴 말, 기존 낱말의 형태를 이용해서 만든 말, 기존 낱말의 의미를 확장해서 만든 말, 외국어에서 차용한 말’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은 1994년부터 발간되었다. 초기 자료에는, 비록 사전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쓰여 온 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2002년 이후의 <신어> 자료집부터는 이러한 어휘를 ‘미등재어’라고 부르고 ‘신어’와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2002년 이후의 자료집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를 고려한 것이며, 새로 생겨나는 말의 특징을 살피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상 미등재어는 다루지 않는다.<sup>2)</sup> 2002년, 2003년, 2004년 <신어> 자료집에 실린 ‘신어’는 각각 407개, 650개, 625개로 총 1,682개이다.

90년대 이후의 단어형성법에 대한 연구는 신어의 조어법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특히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이 발간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90년대에 등장한 신어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희영(1999), 백영석(2001), 최장수(2002) 등이 있다.<sup>3)</sup> 김희영(1999)에서는 신어의 구성을 기준어의 기호와 의미의 유연성에 따라 나누어 살폈으며, 백영석(2001)에서는 2000년까지의 <신어> 자료와 신문자료를 분석하여 ‘신조어’의 개념과 범위,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2001년 <신어> 자료를 분석한 박종순(2003)은 신어의 형태적 구조보다는 내용적 형성 원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신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비유, 유추,

서 발간한 자료집을 뜻하는 경우에는 <신어>로 나타내기로 한다.

- 2) 한편 ‘신어’는 ‘임시어’와도 혼동될 수 있다. ‘임시어’는 한 언어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만들어 사용할 뿐 사회적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의 단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임시어가 지속성을 갖고 언중들에게 승인을 받아 정착된 것이 ‘신어’라고 할 수 있다(이에 관해서는 송원용(2000:1-16) 참조). 이들 사이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며, <신어> 자료집에 실린 ‘신어’ 목록에도 일시적인 유행어나 임시어로 볼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의 일차적 관심사가 아니므로 차후로 미룬다.
- 3)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여기의 신어는 ‘미등재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2002년 <신어>에서의 ‘신어’와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없으며, 분석결과도 단순 비교될 수 없다.

의미의 합성·융합, 언어 외적 형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한편 전명미(2005)는 2000년 이후 <신어> 자료를 대상으로 신어를 계량적으로 분석·연구하였다. 넓은 시간 폭의 자료를 대상으로 신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미등재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분류 방식 또한 재고의 여지가 있어(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것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신어’와 ‘미등재어’를 분리하지 않고 제시한 <신어> 자료집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이들의 차이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어’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계량적 검토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현대국어 신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 II. 신어의 분류 체계

어휘의 분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종, 형성방법, 내적구성에 따른 분류 체계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어종에 따른 분류

[고등학교 문법](2002:117-127)에서는 국어의 어휘를 어종(語種)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기타(혼종어)로 나누고 있다.

이 중 한자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고등학교 문법](2002:118-119)에서는 한자어를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단어들’로서, 이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말, 일본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유입된 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말’ 등

이 있다고 하고, 한자로 적었을 때 중국어와 우리의 발음이 같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미 귀화가 끝난 우리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한자가 있는 단어일 경우 만들어진 곳에 상관없이 우리 발음으로 읽히면 한자어로 간주하고, 중국 발음이나 일본 발음으로 읽히면 외래어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공정(東北工程)’, ‘서남공정(西南工程)’ 등과 같은 말은 한자어로 분류되고, ‘하한쭈(哈韓族)’와 같은 말은 외래어로 분류된다.

한편 ‘혼종어’란 두 종류 이상의 어종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로서, ‘고유어+한자어’인 경우, ‘고유어+외래어’인 경우, ‘한자어+외래어’인 경우,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인 경우 등이 있다. 어종이 다른 외래어끼리 결합한 경우도<sup>4)</sup> 혼종어로 간주할 수 있으나, 고유어나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중시하여 외래어로 분류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의 혼종어란 두 종류 이상의 어종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로서 고유어나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 2. 형성과정에 따른 분류

신어의 형성과정에 따른 본격적인 분류는 문금현(1999:301-312)에서 시도된 바 있다. 다음은 이를 보인 것이다.

### (1) 문금현(1999:303)에서의 ‘신어’의 생성방식에 따른 분류

#### I. 체계적인 방식(신조어의 생성)

4) 예들 들면, ‘모티켓’(motiquette)은 영어 ‘모바일’(mobile)의 앞부분과 프랑스어 ‘에티켓’(étiquette)의 뒷부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 (1) 기존 형태에 접사 결합
  - 1) 내적접사에 의한 파생법
  - 2) 접사에 의한 파생법
- (2) 기존 형태의 합성
  - 1) 형태보존형 합성법
  - 2) 형태손상형 합성법
- (3) 기존 형태의 변형
  - 1) 기존 단어의 일부 대체(차계부 ← 가계부, 미혼부 ← 미혼모)
  - 2) 기존 형태의 축약(따 ← 왕따, 택배 ← 주택배달)
  - 3) 기존형태의 역전(짜가 ← 가짜)

## II. 재활용의 방식(기존어의 재활용)

- (1) 다의적 재활용
- (2) 품사적 재활용

## III. 산발적인 방식(신생어의 창조)

(1)에서 보듯이 문금현(1999:303)에서는 ‘신어’를 생성방식에 따라 크게 ‘체계적인 방식’, ‘재활용의 방식’, ‘산발적인 방식’으로 나누었다. 여기의 ‘체계적인 방식’(I)이란 ‘기존 단어에 바탕을 둔 방식’을 말하며, ‘재활용의 방식’(II)은 ‘기존어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을, 그리고 ‘산발적인 방식’(III)은 ‘기존 단어의 도움 없이 생성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기존 형태에 접사 결합’과 ‘기존 형태의 합성’은 파생법과 합성법을 말한다. 합성법은 ‘형태보존형 합성법’과 ‘형태손상형 합성법’으로 나뉘며, 각각은 다시 ‘기능유지형’과 ‘기능변화형’으로 나뉘어 분류된다. 여기의 ‘기능변화형’이란 한 요소가 ‘접사적 성격으로 변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처럼 접사화한 요소가 결합한 낱말은 합성어로 보기보다는 파생어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체계적인 방식’에 속하는 ‘기존 형태의 변형’에 ‘기존 단어의 일부 대체’를 포함시킨 것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미혼부’의 경우, ‘미혼’과 ‘부’의 합성으로 간주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차계부’의 경우도, 그 모형이 된 ‘가계부(가계+부)’에서 ‘가’(家)의 의미가 분명하게 인식됨에 따라 ‘가+계부’로 재분석되고 이에 유추되어 ‘차’와 ‘계부’가 결합하여 생겨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5)</sup> 또한 ‘공청회’(空聽會: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공청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와 같은 예도 ‘公’의 자리에 ‘空’이 결합하여 신어로 쓰이게 된 것이므로 ‘형태의 변형’이 아니라 ‘합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기존형태의 합성’ 중 ‘형태손상형 합성법’(예: ‘کم맹’)과 ‘기존 형태의 변형’에 속하는 ‘기존형태의 축약’(예: ‘택배’)을 구별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이에 관해 문금현(1999:308, 각주 6)에서는 ‘절단현상에 의한 축약은 기존의 의미를 유지한 채 형태만 절단’해내지만, ‘이것들(기능변화형 합성법)은 절단 후의 형태가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진 합성어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양자를 구별하기로 한다.

문금현(1999)의 논의는 신어의 형성과정에 따른 분류를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돋보이나, ‘피타야(pitaya)’, ‘갭이어(gap year)’ 등과 같이 차용에 의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또한 ‘치어리더’,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말은 이미 외국에서 하나의 낱말로 형성되어 우리말에 들어온 것으로, 한국어 화자들이 합성하여 만든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sup>6)</sup> ‘기존 형태의 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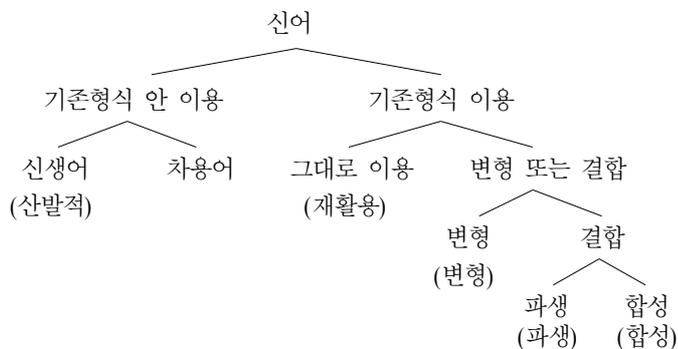
5) ‘고등학교’가 줄어 ‘고당’이 되고, ‘중+당’, ‘초+당’, 나아가 ‘직+당’까지 생겨난 것은 ‘고+당’으로 재분석되고 여기에 유추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의 존재는 ‘가+계부’로의 재분석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6) 외래어 합성어가 모두 외국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말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 구로 쓰이던 말이 우리말에 들어와 하나의 단어로 굳어

으로 간주하고 있어 수정을 요한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사용할 분류체계를 정리하여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이에 대응하는 문금현(1999)의 용어는 아래에 ( ) 안에 넣어 제시한다.)

(2) ‘신어’의 생성방식에 따른 분류



(2)는 (1)을 수정하여 기존 형식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차용어’를 포함시키고, 이분법적 체계로 바꾼 것이다. (2)에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기존 형태의 변형’에 포함되어 있던 ‘기존 단어의 일부 대체’는 파생이나 합성으로 분류할 것이며, ‘형태손상형, 기능변화형 합성법’ 중 파생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생어로 분류하기로 한다.

3. 내적구성에 따른 분류

단어를 내적구성에 따라 분류할 때에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파생어, 합성어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 경우도 있고, ‘치킨데이’나 ‘디엠비’ 등처럼 한국어 화자들이 처음 쓰거나 만들어낸 말도 많다.

전명미(2005)에서는 신어를 구성방식에 따라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혼성어, 축락어로 나눈 바 있다. 이 분류는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의 경우 단어의 내적구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혼성어, 축락어(절단되어 만들어진 말)’ 등은 형성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단일한 기준에 의한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어휘가 동시에 두 유형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성어’나 ‘축락어’는 내적구성상 복합어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신어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파생어, 합성어로 나누게 될 것이다.

단일어와 복합어의 분류 및 파생어와 합성어의 분류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다음 예를 보자.

- (3) 가. 곰신, 단관
  - 나. 방청, 세기; 노비어천가; 백건백락
  - 다. 깎이어, 치킨데이
  - 라. 얼짱, 과파라치; 문잡이

박용찬(2002:6)에서는 (3가)의 ‘곰신’(← 고무신), ‘단관’(← 단체관람)과 같은 단어의 경우 합성어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고 단일어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곰신’이나 ‘단관’을 하나의 형태소로 간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견해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곰신’의 ‘곰’은 ‘고무’를 뜻하며, ‘단관’의 ‘단’은 ‘단체’를, 그리고 ‘관’은 ‘관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복합어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박용찬(2002:6)에서는 (3나)의 예들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한자로 구성’된 ‘방청’(防廳: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막음), ‘세기’(細技)와 같은 단어들과, 기존 단어에서 유추되어 만들어진 단어들(‘노비어천가’ ← 노(무현)+(용)비어천가), 그리고 사

자성어식 단어들(‘백견백락’, 百見百樂)도 모두 단일어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예들의 ‘방(防), 청(廳), 세(細), 기(技), 노(廬), ...’ 등과 같은 한자어 단위들은 비록 자립적으로 쓰이지는 않더라도 각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태소로 간주하는 것이 옳으며, 따라서 단일어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sup>7)</sup>

한편 (3다)의 ‘깡이어’와 같은 차용어를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옳은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차용어의 내적구성에 대한 지식은 그 언어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영어권에서 차용된 ‘위파사나’와 같은 말이 복합어인지의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으며, 영어인 경우에도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화자들에게는 차용된 말의 내적구성에 대한 인식이 쉽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차용어인 경우 원어의 내적구성에 상관없이 모두 단일어로 간주하고자 한다. 송기중(1992=1993:370)에서도 ‘텔레비전’, ‘엘리베이터’, ‘타이프라이터’ 등과 같은 ‘다음절 외래어들은 본래 언어에서 몇 개의 형태소로 분석되는 것과 상관없이, 국어에서는 단일 형태소이다’라고 한 바 있는데, 이는 본고의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이와 달리 ‘치킨데이’<sup>8)</sup> 한국어 화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이므로 합성어로 간주한다.

(3라)의 단어들에 대한 분류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얼짱’, ‘과파라치’의 ‘짱’, ‘파라치’ 등을 접사로 간주하는가의 여부에

7) 송기중(1992=1993:373)에서는 비한자어와 한자어를 통괄하는 ‘형태소’의 개념은 ‘국어의 어휘항을 구성하는 분석 가능한 단위 및 분석 가능한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형식’으로 정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본고의 관점과 일치한다.

8) 9월 9일을 이르는 말. 조류 독감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닭, 오리 사육 농가를 돕기 위하여 치킨을 먹기로 한 날로서, 농진청 축산 기술 연구소가 제안했다.

따라 파생어와 합성어의 판단이 달라지며, ‘문잡이’와 같은 단어도 [[문+잡]+이]로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문+[잡+이]]로 분석할 것인가에 따라 파생어와 합성어의 판단이 달라진다. 본고에서는 ‘짱’, ‘과라치’, ‘티즌’, ‘깡’, ‘테크’ 등과 같은 말은 접사로 간주하였으며, 따라서 이들이 결합한 단어는 파생어로 분류되었다.<sup>9)</sup> 후자의 경우에는 필자의 판단에 따라 분류하되 그 결과는 목록으로 제시하기로 한다(각주 15 참조).

### III. 신어의 단어형성법적 특징

#### 1. 신어의 어종

신어는 그 구성요소의 어종이 무엇인가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분류될 수 있다. 다음은 이들의 예를 보인 것이다.

- (4) 가. 아자, 누리꾼, 발필이, 불닭, 바퀴신발, 봄마중, 다리베개  
 나. 공(空)청회, 남승무원, 주말족, 세탁액, 습은도, 과학고  
 다. 메가베스트셀러, 깡이어, 디엠비, 치킨데이  
 라. 동생부대, 번개쇼핑, 이청첩장, 홀리건화하다

(4가)는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단어들의 예이며, (4나)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들이다. (4다)는 외래어의 예들인데, 이들 중 ‘메가베스트셀러’, ‘깡이어’는 외국에서 쓰이던 말이 차용되어 쓰이는 경우이고, ‘디엠비’, ‘치킨데이’는 한국어 화자들이 만들어내어 쓰

9) 앞에 언급한 바 있듯이 문금현(1999:308)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합성어로 분류하였으며, 박용찬(2002:7-11)에서도 합성어로 분류하였다.

이게 된 말이다. (4라)는 혼종어의 예로서, 각각 ‘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외래어+한자어’, ‘외래어+한자어+고유어’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이들의 통계를 보인 것이다.<sup>10)</sup>

표 1. 신어의 어종별 분류

어종 연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계
				소계	고+한	고+외	한+외	고+한+외	
2002	17 (4.2)	81 (19.9)	<b>163</b> (40.0)	146 (35.9)	48 (11.8)	22 (5.4)	74 (18.2)	2 (0.5)	407
2003	32 (4.9)	190 (29.2)	<b>239</b> (36.8)	189 (29.1)	66 (10.2)	18 (2.8)	105 (16.2)	-	650
2004	37 (5.9)	167 (26.7)	<b>210</b> (33.6)	<b>211</b> (33.8)	78 (12.5)	29 (4.6)	100 (16.0)	4 (0.6)	625
합계	86 (5.1)	438 (26)	<b>612</b> (36.4)	546 (32.5)	192 (11.4)	69 (4.1)	279 (16.6)	6 (0.4)	1,682

표 1은<sup>11)</sup> 전체 신어 중 외래어(36.4%)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혼종어(32.5%) 역시 외래어와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혼종어 중 외래어를 포함하는 단어는 전체 신어의 21.1%로서, 외래어와 외래어를 포함하는 신어가 전체 신어의 57.5%에 달한다.

한자어는 외래어나 혼종어보다는 덜 생산적이지만, 26%로서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자어는 특히 혼종어의 형성

10) 혼종어를 분류함에 있어 결합어종의 순서는 무시하였다. 따라서 ‘뚜껑광고’(고유어+한자어), ‘명품개’(한자어+고유어)는 모두 (고+한)으로 분류된다.

11) 2002년 신어의 경우 박용찬(2002:4)에 제시된 수치와 하나씩 차이가 있다. 어느 한 쪽의 착오에 기인할 것이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대로 제시한다.

에 생산적으로 참여하여, 한자어를 포함하는 혼종어가 전체 신어의 28.4%나 된다. 결국 한자어나 한자어를 포함하는 신어는 54.4%로서, 외래어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박용찬(2002:3)에서는 2002년 신어의 경우 외래어 및 외래어를 포함하는 단어의 비율이 64%이며, 한자어 및 한자어를 포함하는 단어는 50%로서, 외래어의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뛰어난 조어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어 온 한자어와 비교할 때 아주 놀랄 만한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2002년만의 특수한 현상으로 2003년과 2004년의 경우에는 한자어와 외래어의 비중이 거의 같거나 한자어가 더 많다(2003년 55.6: 55.8, 2004년 55.8:54.8). 이는 한자어가 신어형성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고유어는 5.1%밖에 되지 않으며, 혼종어 중 고유어를 포함하는 경우도 15.9%에 그쳐, 고유어나 고유어를 포함하는 말은 전체 신어의 21%밖에 안 된다.

다음은 그동안 간행된 국어사전의 표제어를 어종별로 분류한 통계이다([큰사전](1957)과 [국어대사전](1961)의 통계는 임지룡(2002:46)에서 옮긴 것이며,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통계는 정호성(2000:63)에서 옮긴 것이다).

표 2. 사전별 어종 분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계
큰사전 (1957)	74,612 (45.46%)	<b>85,527</b> <b>(52.11%)</b>	3,986 (2.43%)	-	164,125
국어대사전 (1961)	34,272 (16.54%)	<b>142,876</b> <b>(68.94%)</b>	13,847 (6.68%)	16,266 (7.85%)	207,261
표준 국어대사전 (1999)	111,299 (25.29%)	<b>251,478</b> <b>(57.15%)</b>	23,196 (5.27%)	54,091 (12.29%)	440,064

표 2는 국어의 어휘 중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외래어는 5~6%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어에서 외래어를 포함하는 단어가 전체 신어의 57.5%나 된다는 사실은 최근의 신어 형성에서 외래어가 활발하게 사용됨을 보여주는, 신어의 가장 특징적인 양상이라 하겠다.

## 2. 신어의 형성과정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신어 형성과정에 따른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신어를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신어의 형성과정별 예를 보인 것이다.

- (5) 가. 아햏햏, 로플로플, 아자  
 나. 비니(beanie), 셰프(chef), 인터미션(intermission), 갱이어(gap-year), 풋아웃(put-out), 사브(SAV← sports activity vehicle)  
 다. 도토리, 님, 퍼가다, 업등이  
 라. 곰신, 스펙; 강쥐, 검색, 뿔노, 햏자  
 마. 초보꾼, 얼음방, 붙어살이, 봄맞이족  
 바. 얼짱, 얼짱, 민텔, 과파라치, 놈현스럽다  
 사. 물갈창, 생활기스, 목삼겹살, 폰사진, 치킨데이  
 아. 손풍기, 맛캉스, 김치우드, 로또팰리스

(5가)는 신생어의 예들이다. ‘아햏햏’은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을 때 내는 감탄사이며, ‘로플로플’은 ‘인터넷에서, 기분이 나빠지다가 좋아질 때 내는 소리’이고, ‘아자’는 ‘파이팅(fighting)’을 순화하여 이르는 말이다. 2002~2004년 <신어> 자료집에서 이러한 예로 간주될 수 있는 단어는 위의 세 개뿐으로 모두 감탄사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신어가 생겨날 때 기존 형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전혀 새로운 형식의 출현은 감탄사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국한됨을 의미한다.

(5나)는 차용되어 우리말에 들어온 단어들이다. 외래어의 경우 ‘갭이어’(gap year), ‘푹아웃’(put-out) 등과 같이 이미 외국에서 합성되어 우리말에 차용된 경우와 ‘치킨데이’(chicken day), ‘웰빙과마’(←wellbeing permanent) 등과 같이 한국어 화자가 만들어 낸 단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yahoo, google)에서 검색하여 외국에서 이미 쓰이고 있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전자의 경우는 ‘차용’으로, 후자의 경우는 파생, 합성 등 ‘기존형식을 활용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5다)는 이미 존재하는 단어가 새로운 뜻을 얻게 되어 신어로 간주된 경우이다. ‘도토리’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사이월드(cyworld)’에서 아이템을 구입할 때 쓰는 사이버머니를 가리키며, ‘님’은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로 쓰이게 된 신어이다. ‘업둥이’는 ‘취객을 납치해 돈을 빼앗는 일’을 뜻한다.

(5라)는 뜻의 변화는 없으나 형태가 변형을 입어 신어로 간주된 경우이다. ‘곰신’(← 고무신), ‘스펙’(← specification) 등과 같이 형태가 잘라져 나가거나 축약되어 줄어든 경우도 있고, ‘강쥐’(← 강아지), ‘검색’(← 검사), ‘빨노’(← 포르노), ‘행자’(← 行者) 등과 같이 형태가 변형된 경우도 있다.

(5마)와 (5바)는 파생어의 예들로서, 각각 어근의 형태가 변형을 겪지 않은 경우와 변형을 겪은 경우이다. (5바)의 ‘얼짱’, ‘얼짱’의 ‘얼’은 ‘얼굴’이 줄어든 것이며, ‘민텔’의 ‘민’은 ‘민박’이, ‘과과라차’의 ‘과’는 ‘(불법)과외’가 줄어든 것이다.

(5사)와 (5아)는 합성어의 예들로서, 각각 구성요소의 형태가 변형을 겪지 않은 경우와 변형을 겪은 경우를 보인 것이다. ‘손퐁기’는 ‘손’과 ‘선퐁기’에서 줄어든 ‘퐁기’를 결합시켜 만든 단어이다. ‘맛캉스’는 ‘맛+(바)캉스’에서, ‘김치우드’는 ‘김치+(Holly)wood’에

서, ‘로또팰리스’는 ‘로또+(tower)palace’에서 온 말이다.

2002~2004 <신어> 자료집의 신어 목록에는 총 1,682개의 신어가 실려 있는데, 이 중 구 301개와 북한어 1개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말인지 아니면 우리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단어 22개를<sup>12)</sup> 제외하면 1,358개가 된다.

표 3. 신어의 형성과정에 따른 분류

	기존형식 활용치 않음		기존형식 활용						합계
	신생	차용	기존형식 그대로	형태변형 또는 결합					
				형태 변형	과생		합성		
					형태 유지	형태 변형	형태 유지	형태 변형	
2002 (%)	1 (0.3)	65 (20.6)	5 (1.6)	11 (3.5)	108 (34.2)	19 (6)	82 (25.9)	25 (7.9)	316
2003 (%)	1 (0.2)	112 (20.5)	8 (1.5)	25 (4.6)	185 (33.8)	24 (4.4)	154 (28.2)	38 (6.9)	547
2004 (%)	1 (0.2)	90 (18.2)	7 (1.4)	23 (4.6)	141 (28.5)	18 (3.6)	175 (35.4)	40 (8.1)	495
합계 (%)	3 (0.2)	267 (19.7)	20 (1.5)	59 (4.3)	434 (32.0)	61 (4.5)	411 (30.3)	103 (7.6)	1,358

표 3은 합성과 과생이 각각 37.9%(30.3+7.6)와 36.5%(32.0+4.5)로서, 신어 형성과정 중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방식임을 보여 준다. 또한 최근으로 오면서 합성에 의한 신어 형성이 점차 증가

12) 이들은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되기는 하나,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실치 않은 경우들로서(일단 검색이 되므로 차용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클러버, 바라카라바, 레플리카, 엘코머스, 나이트댄스, 컷팅쿨, 트리폴딩, 파파길, 플록시빌리, 모터켓, 더블라이프, 머추리얼리, 멀티히트, 바다바바디, 아쿠아짐, 워터파크, 자이겐티즘, 지피에스폰, 카오스모스, 티보드, 피겨, 헬스웨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2002년 33.8%, 2003년 35.1%, 2004년 43.5%), 합성이 이루어질 때 구성요소의 형태가 변형을 겪는 일이 파생 등 다른 경우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차용되는 단어도 전체 신어의 20%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별다른 차이 없이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 차용의 대부분은 영어에서 온 것이며, 영어 외의 다른 언어에서 차용된 말은 11개에 불과하다(예: 온사마(일본어), 바리스타(이탈리아어), 쇼콜라티에(프랑스어)).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어 화자들이 외래어를 사용하여 만들어내는 신어들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표 1에 제시한 바 있듯이 전체 외래어 612개 중 구 99개와 불확실한 경우 22개를 제외하면 491개이며, 이 중 차용된 말은 267개이므로, 한국어 화자들이 외래어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말은 224개나 된다. 구와 북한어를 제외한 전체 신어 중 16.5%를 차지하며, 분석 대상 외래어 491개 중 45.6%에 달하는 것이다.

뜻의 변화 없이 형태만 변형되어 신어로 간주되는 경우는 5%에 미치지 못하며, 기존 형식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여 신어로 간주되는 경우는 1.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새로운 형식이 출현하는 경우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감탄사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국한된다.

신어 형성과정은 어종별로도 차이가 있다. 다음은 형성과정에

13) 형태가 변형됨이 없이 합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414개이며, 형태변형을 수반하는 경우가 106개이므로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형태변형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20.4%에 달한다. 파생의 경우는 형태변형을 입는 비율이 11.7%에 그쳐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합성일 때 형태변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외래어가 신어형성에 사용되는 경우 형태의 일부가 잘라져 나가거나 줄어드는 등 형태가 변형되는 일이 많으며, 외래어를 사용한 신어 형성은 파생법보다 합성법에 의한 경우가 활발하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따른 분류를 어종별로 정리한 것이다(차용된 말은 한국어 화자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므로 제외한다).<sup>14)</sup>

표 4. 어종별 형성과정

	기존 형식 미활용 (신생)	기존형식 활용						합계
		기존 형식 그대로	형태변형 또는 결합					
			형태 변형	파생		합성		
		형태 유지		형태 변형	형태 유지	형태 변형		
고유어 (%)	3 (3.8)	5 (6.3)	5 (6.3)	34 (42.5)	5 (6.3)	28 (35.0)	-	80
한자어 (%)	-	2 (0.6)	12 (3.3)	153 (42.1)	1 (0.3)	178 (49.0)	17 (4.7)	363
외래어 (%)	-	10 (4.5)	33 (14.7)	23 (10.3)	21 (9.4)	74 (33.0)	63 (28.1)	224
혼종어 (%)	-	3 (0.7)	9 (2.1)	224 (52.8)	34 (8.0)	131 (30.9)	23 (5.4)	424
합계 (%)	3 (0.3)	20 (1.8)	59 (5.4)	434 (39.8)	61 (5.6)	411 (37.7)	103 (9.4)	1,091

표 4는 고유어의 경우에는 파생이 가장 활발한 생성방식이며, 한자어와 외래어에서는 합성이 가장 활발한 생성방식임을 보여 준다. 특히 외래어의 경우에는 합성에 의한 경우가 61.1%에 달하며, 파생은 19.7%에 지나지 않는다. 한자어의 경우는 합성이 53.7%이며, 파생도 42.4%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혼종어의 경우 파생이 60.8%로 가장 활발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14) 신어 목록의 고유어는 86개이나, 구 5개와 북한어 1개를 제외하면 80개가 된다. 신어 목록의 한자어와 혼종어 438개, 546개에서 구 75개와 122개를 제외하면 각각 363개, 424개가 되며, 외래어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224개가 분석 대상이다.

한편 표 4에서 외래어를 사용하여 합성으로 단어를 형성할 때 형태변형을 겪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합성어 중 형태변형을 겪는 경우가 무려 46%에 달하는데, 이는 외래어의 어종이 주로 영어이며, 영어의 음절 수가 우리말에 비해 긴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형식이 형태의 변형만으로 신어로 간주되는 경우도 외래어인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4에서 새로운 형식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고유어에 국한되며 그 비율도 극히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기존 형식이 의미변화에 의해 새로운 단어로 간주되는 경우는,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고유어와 외래어에서 다른 어종보다 활발하다.

### 3. 신어의 내적구성

신어를 내적구성에 따라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분류할 수도 있다. 다음은 이들의 예를 보인 것이다.

- (6) 가. 아햏햏, 도토리, 강쥐; 갱이어
  - 나. 참살이, 주말족, 요리짱, 폰티즌, 캐피스룩, 티브이슈랑스
  - 다. 몸살, 다걸기, 싱싱화; 치킨데이, 퍼뮤니케이션

(6가)는 단일어의 예이다. 기존 형식을 이용하지 않는 신생어는 단일어일 수밖에 없으며, ‘도토리, 강쥐’ 등도 단일 형태소이므로 단일어에 속한다. ‘갱이어’는 차용된 말이므로, 단일어로 간주된다.

(6나)는 파생어의 예들이다. ‘참살이’와 ‘주말족’은 각각 접사 ‘-살이’와 ‘-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며, ‘요리짱’, ‘폰티즌’, ‘캐피스룩’, ‘티브이슈랑스’ 등은 접사화한 ‘-짱’(←長), ‘-티즌’, ‘-룩’, ‘-슈랑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문금현(1999), 박용찬(2002)에

서는 이들이 접사화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결합한 단어들을 합성어로 간주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데 생산적으로 쓰이므로 접사로 간주하고 이들이 결합한 단어는 파생어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6다)는 합성어의 예들이다. ‘몸살’, ‘다걸기’, ‘싱싱회’ 등은 각각 ‘몸+살’, ‘다+걸기’,<sup>15)</sup> ‘싱싱+회’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치킨데이’는 한국어 화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합성어이며, ‘퍼뮤니케이션’은 ‘퍼가다(오다)’의 앞부분과 ‘커뮤니케이션’의 뒷부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서 역시 한국어 화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이다.

다음은 내적구성에 따른 분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sup>16)</sup>

표 5. 신어의 내적구성에 따른 분류

	단일어	복합어				소계
		파생어		합성어		
		형태유지	형태변형	형태유지	형태변형	
2002 (%)	68 (21.5)	110 (34.8)	18 (5.7)	84 (26.6)	36 (11.4)	316
2003 (%)	123 (22.5)	185 (33.8)	24 (4.4)	157 (28.7)	58 (10.6)	547
2004 (%)	97 (19.6)	141 (28.5)	18 (3.6)	179 (36.2)	60 (12.1)	495
합계	288 (21.2)	436 (32.1)	60 (4.4)	420 (30.9)	154 (11.3)	1,358

15) ‘명사/부사+동사+접사’ 구성인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합성어([명사/부사+[동사+접사]): 다걸기, 멋울림, 빌딩타기

파생어([명사+동사]+접사): 꼬리물기, 알박기, 발밀이, 천갈이

16) 표 5는 표 3의 ‘신생’과 ‘차용’을 단일어로 간주하고, ‘기존형식 그대로’와 ‘(기존 형식)형태변형’을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재분류한 결과이다. ‘웹동’과 같은 단어는 ‘웹동아리’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형성과정상 ‘기존 형태의 변형’에 속하나 내적구조상으로는 합성어로 간주된다.

표 5에서 2002~2004 <신어> 자료집의 신어목록에 있는 신어 중에는 합성어가 42.2%로 가장 많고, 파생어가 36.5%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며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일어는 21.2%에 달하나, 고유어 7개를 제외하면<sup>17)</sup> 대부분 차용어이다.

표 5는 또한 파생어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합성어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도 보여준다(2002년 38%, 2003년 39.3%, 2004년 48.3%). 이러한 현상은, 2절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합성에 의한 신어 형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 하겠다. 한편 합성어의 구성요소가 형태 변형을 입는 일이 파생어보다 많으며, 그 차이는 표 3에서보다 더 벌어져 있는데(전체 합성어 중 26.8%), 이는 ‘의미 변화는 없지만 형태가 변형되어 신어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 합성어에 속하는 데 기인한다.

다음은 어종에 따라 다시 분류해 본 것이다.

표 6. 신어의 어종별 내적구성

	단일어	복합어				소계
		파생어		합성어		
		형태유지	형태변형	형태유지	형태변형	
고유어 (%)	7 (8.8)	35 (43.8)	5 (6.3)	30 (37.5)	3 (3.8)	80
한자어 (%)	-	154 (42.4)	-	180 (49.6)	29 (8.0)	363
외래어 (%)	281 (57.2)	23 (4.7)	21 (4.3)	76 (15.5)	90 (18.3)	491
혼종어 (%)	-	224 (52.8)	34 (8.0)	134 (31.6)	32 (7.5)	424
합계 (%)	288 (21.2)	436 (32.1)	60 (4.4)	420 (30.9)	154 (11.3)	1,358

17) 단일어로 분류된 7개의 고유어는 ‘아햏햏, 로폴로폴, 님, 즐, 도토리, 강쥐, 아자’ 등이며, 외래어의 예로는 ‘스펙, 사이’ 등을 들 수 있다.

표 6은 고유어의 경우에는 파생어(50.1%)가 가장 많으며, 한자어에서는 합성어(57.6%)가, 혼종어에서는 파생어(60.8%)가 가장 많은 점에서 표 4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 주나, 외래어의 경우에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차용된 말과 한국어 화자들이 만들어낸 말을 구별하여 차용된 말은 단일어로 간주한 데 따른 결과이다.

외래어에서 파생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9%밖에 안 되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한국어 화자들이 외래어 어근에 외래어 접사를 결합하여 신어를 만들어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어가 9%에 이르는 것은 ‘-티즌’, ‘-어(←er)’, ‘-룩’ 등 새롭게 접사화한 요소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쓰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 1) 파생어

파생어 490개 중 동사 13개, 형용사 11개를 제외하면 모두 명사로서, 명사에 접사가 결합하여 다시 명사가 된 어휘적 파생어 대부분이다. 다음은 품사별 파생어의 예를 보인 것이다.

- (7) 가. 다세대촌, 초보꾼, 불어살이, 찌질이; 셀카족, 소통령  
나. 방법하다, 코드풀이되다, 팽시키다  
다. 영하다; 검사스럽다; 죽음이다

(7가)는 명사파생의 예로 ‘다세대촌’은 명사어기에서, ‘불어살이’는 동사어기에서, ‘찌질이’는 불규칙어기에서 파생된 것이다.<sup>18)</sup> ‘셀카족’은 ‘셀프 카메라’의 첫 음절을 따서 만든 ‘셀카’에 접미사 ‘-

18) 동사의 어근이나 사전에 없는 어휘는 불규칙어기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날씬하다’의 어근 ‘날씬’에 접미사 ‘-녀’가 결합하여 파생된 ‘날씬녀’가 있다(2004년 신어).

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절단형 어기에서 파생된 경우이며, '소통령'은 '대통령'에서 유추하여 만들어진 파생어로, 기존 단어에서 유추하여 파생된 경우이다.

(7나)는 동사인 경우로서, 동사로 파생될 때에는 '-하다'와 '-되다', '-시키다'가 결합하였다. (7다)는 형용사인 경우로서, 형용사로 파생될 때 쓰이는 접사는 '-하다'와 '-스럽다', '-이다' 등이었다. 다음은 동사와 형용사로 파생된 경우를 보인 것이다.

표 7. 파생동사와 파생 형용사

	동사			형용사			소계
	-하다	-되다	-시키다	-하다	-스럽다	-이다	
2002	3	2		1	1	-	7
2003	3	-		2	5	1	11
2004	3	1	1	1	-	-	6
합계	9	3	1	4	6	1	24

표 7은 동사로 파생되는 경우 '-하다'가, 형용사로 파생되는 경우는 '-스럽다'가 결합하여 파생되는 양상이 두드러짐을 보여 준다. '-하다'와 '-스럽다'는 어중에 상관없이 고르게 결합하였다.<sup>19)</sup>

파생접사는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접미사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신어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19) '-하다'와 결합하여 파생어가 된 단어의 어기는 고유어가 2개, 한자어 5개, 외래어 5개, 혼종어 1개였으며, '-스럽다'와 결합하여 파생어가 된 단어의 어기는 고유어가 1개, 한자어 2개, 외래어 3개였다. '-되다' 역시 한자어 어기와 결합하는 경우가 2개, 외래어 기인 경우는 1개로서 어중에 관한 별다른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어종별 접두사와 접미사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합계	
	접사수	단어수	접사수	단어수	접사수	단어수	접사수	단어수
접두사	1	1	21	37	1	6	23	44
접미사	22	87	82	276	12	89	116	452
합계	23	88	103	313	13	95	139	496
(%)	16.5%	18%	74.1%	63.9%	9.4%	19.2%	100%	100%

표 8에서 접두사의 수는 23개인 반면, 접미사의 수는 116개에 달하며, 접두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신어는 44개에 지나지 않으나, 접미사가 결합한 신어는 452개로 파생어 전체의 91%에 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8은 한자어 접사가 전체 접사의 74.1%로 다른 어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특히 접두사의 경우는 한자어가 대부분이다) 한자어 접사에 의한 신어도 63.9%에 달하나, 고유어 접사와 외래어 접사는 합하여 25.9%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아울러 고유어 접사(23개)가 외래어 접사(13개)에 비해 종류는 훨씬 더 많으나, 고유어 접사에 의한 파생어는 88개인 반면 외래어 접사에 의한 파생어는 95개로, 생산성에 있어서는 외래어 접사가 더 높음도 확인할 수 있다.

고유어 접두사로는 ‘혼자인, 하나인, 한 쪽으로 치우친’의 의미를 더하는 ‘외.’만 있으며, ‘외.’가 결합한 신어도 ‘외별이’ 하나 뿐이다.<sup>20)</sup> 외래어 접두사 역시 하나로서 ‘이-(←e)’ 뿐인데, ‘이.’가 결합한 신어는 6개로 비교적 생산적인 편에 속한다. 한자어 접두사는 종류는 많으나, 생산성에 있어서는 그다지 높지 않아서,

20) 2003년 신어인 ‘참여행’의 ‘참’을 접두사로 간주하면, 고유어 접두사는 2개로 늘어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접두사 ‘참-’이 표제어로 실려 있으나, 본고에서는 ‘참’이 명사로 쓰이고, ‘참살이’(2004년 신어)와 같은 단어에서 어근으로 간주됨을 고려하여 ‘참여행’을 합성어로 분류하였다.

‘역(逆)-’과 ‘탈(脫)-’이 결합한 신어가 각각 6개, 5개로 가장 많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접미사는 다양하며 생산성도 높고, 새로 생겨나는 경우도 많다. 고유어 접미사로는 ‘-짱’(28개)<sup>21)</sup>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있으며, 동사형용사 파생접사인 ‘-하다’(13개)와 형용사 파생접사 ‘-스럽다’(6개)가 생산적이고, 명사 파생접사인 ‘-이’(7개)와 ‘-기’(6)도 생산적이었다. 한자어 접미사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는 ‘-족(族)’이며(93개), 다음으로 ‘-주(酒)’(28개), ‘-방(房)’(12개), ‘-남(男)’(9개), ‘-녀(女)’(6개), ‘-론(論)’(6개), ‘-형(型)’(6개)의 순서로 생산성이 높았다.

외래어 접미사 중 생산성이 높은 것은 ‘-파라치’(26개), ‘-룩’(12개), ‘-티즌’(11개), ‘-깡’(9개), ‘-테크’(7개), ‘-맨’(6개), ‘-팅’(4개), ‘-이즘’(5개) 등으로, 이들의 대부분은 최근에 와서 접사로 굳어진 것들이다. 이 과정에서 형태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파라치’(←paparazzi), ‘-깡’(←와리깡, わりかん), ‘-테크’(←technology), ‘-티즌’(←citizen), ‘-팅’(←meeting)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22)</sup>

21) ‘-짱’은 ‘장(長)’에서 온 말이므로 한자어 접사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화자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매우 약하며, 발음도 달라졌다는 점을 중시하여 고유어 접사로 간주하였다.

22) 접사목록은 다음과 같다(뒤의 숫자는 파생어 수를 가리키며, 숫자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는 파생된 단어가 1개임을 뜻한다).

고유어 접두사: 외-

고유어 접미사: -짱28, -하다13, -이7, -기6, -스럽다6, -살이3, -팡3, -꾼3, -되다3, -음2, -발2, -질2, -순이2, -둥이, -맹이, -이다, -시키다, -쟁이, -돌이, -빠

한자어 접두사: 역(逆)-6, 탈(脫)-5, 초(超)-3, 냉(冷)-2, 미(未)-2, (本)-2, 저(底)-2, 준(準)-2, 고(高)-, 광(光)-, 난(難)-, 남(男)-, 대(大)-, 무(無)-, 반(反)-, 폐(廢)-, 생(生)-, 신(新)-, 왕(王)-, 중(中)- 소(小)-

한자어 접미사: -족(族)93, -주(酒)28, -방(房)12, -남(男)9, -녀(女)6, -론(論)6, -형(型)6, -기(機)4, -식(式)4, -인(人)4, -자(者)4, -견(犬)3, -단(團)3, -맹

## 2) 합성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신어목록에 나온 합성어는 부사(쪽쪽탄탄), 감탄사(아자아자) 3개 등의 용례를 제외하고 모두 명사였다.

합성은 형태의 변형이 없는 경우와 변형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은 이들의 예들이다.

- (8) 가. 물갈창, 목삼겹살, 솔로부대, 주부(主夫)  
나. 백견백락, 친유반미, 삼계탕
- (9) 가. 김치우드, 택숙자, 디지털, 뮤페라  
나. 지역감정, 공청회  
다. 사오정, 삼팔선, 오륙도

(8가)는 형태의 변형이 없는 경우이다. ‘주부’(主夫)는 ‘주부(主婦)’에서 유추되어 생겨난 신어일 것이나, ‘주’와 ‘부’가 각각 단독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형태의 변형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기로 한다. (8나)의 ‘백견백락’은 사자성어식 단어이며, ‘삼

(盲)3, -용(用)3, -주(株)3, -지(地)3, -촌(村)3, -감(感)2, -관(官)2, -료(料)2, -법(法)2, -생(生)2, -수(手)2, -전(展)2, -전(戰)2, -정(錠)2, -주의(主義)2, -증(症)2, -체(體)2, -화(化)2, -아(兒)2, -국(國), -가(街), -가(家), -가(歌), -고(高), -광(狂), -구(口), -권(權), -권(圈), -금(金), -난(難), -대(臺), -도(圖), -력(力), -록(錄), -류(類), -률(率), -모(母), -물(物), -민(民), -벽(癖), -복(服), -부(部), -비(費), -사(史), -사(士), -상(商), -석(席), -성(性), -소(所), -수(水), -실(室), -아(兒), -애(愛), -어(語), -왕(王), -욕(欲), -육(肉), -일(日), -장(葬), -장(場), -적(的), -점(店), -층(層), -투(投), -파(派), -판(版), -포(砲), -품(品), -학(學), -회(會)

외래어 접두사 : 이(e)-6

외래어 접미사 : -파라치26, -룩12, -티즌11, -깡9, -테크7, -맨6, -이즘5, -팅4, -슈랑스3, -어3, -텔2, -이스트1

계탕'은 '삼계탕'에서 유추되어 생겨난 말이다. 이들의 경우는 '견', '락', '계' 등이 직접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형태의 변형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하기가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 일단 형태의 변형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였다.<sup>23)</sup>

(9가)의 '김치우드'는 '김치'와 'hollywood'가 줄어진 '우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신어이다. '택숙자'는 '택시를 거리나 공항 따위에 세워 둔 채 잠을 자며 손님을 기다리는 운전기사를 이르는 말'로 앞의 '택'이 'taxi'를 줄인 말이므로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디지털'은 'digital cartoon'이 줄어진 것이며, '뮤페라'는 'musical opera'가 줄어진 것이다. (9나)는 '지역감정'과 '공청회'는 각각 '지역감정(地域感情)'과 '공청회(公聽會)'에 유추되어 만들어진 말로 '지'(地) 대신 '직업'을 뜻하는 '직'(職)이, '공'(公) 대신 '공'(空)이 결합한 것이다. 여기서 '역감정'과 '청회'는 독립된 단위를 이루지 못하므로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9다)는 모두 '직장, 취업'에 관련된 말로 여기서의 '사오', '삼팔', '오륙'은 나이를 가리키는데,<sup>24)</sup> 나이를 읽는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합성명사는 통사적 합성과 비통사적 합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대국어의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는 비생산적이나 비통사적 합성어로 된 신어도 보인다.

(10) 가. 안줏벌레, 맞춤버스, 늘찬배달

23) 2002~2004년 <신어>에 보이는 사자성어식 단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경국지남, 어주구리, 백견백락, 사면송사, 사필귀도, 종선여류, 이팔망동, 삼당사략, 삼보일배, 주고외비, 주침야활, 춘우추동, 친유반미, 속속익신, 일당십락, 천고여비, 팬생팬사. '삼계탕'과 같은 유형의 다른 신어는 없었다.

24) 이러한 유형의 신어에는 '육이오, 이태백, 삼일절'이 더 있다.

나. 납작머리, 이래서야정국, 안다박수

(10가)는 통사적합성어의 예들로서, ‘안줏벌레’는 ‘명사+명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며(‘ㅅ’은 사이시옷임), ‘맞춤버스’는 ‘동사의 명사형+명사’, ‘늘찬배달’은 ‘동사의 관형사형+명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10나)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들이다. ‘납작머리’는 ‘형용사 어근+명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래서야정국’은 부사적 성격의 형식인 ‘이래서야’에 ‘정국’이 합쳐진 말이다. ‘안다박수’ 또한 용언의 평서형 ‘안다’에 명사 ‘박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sup>25)</sup>

####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2002, 2003, 2004년 <신어>의 ‘신어’를 어종, 형성과정, 내적구성에 따라 분석하여 현대국어 신어의 단어형성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어종별로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혼종어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신어의 형성과정은 기존 형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신생’과 ‘차용’)와 기존형식을 이용하는 경우(‘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변형시킨 경우’, ‘파생’, ‘합성’)로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신어의 내적구성은 단일어와 파생어, 합성어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5) 비통사적 합성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납작머리, 몰래촬영, 일하기싫어 병, 두루누리, 이래서야정국, 안다박수, 어울통신, 싱싱회.

1. 신어의 어종

1) 전체 신어 중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혼종어까지 고려하면 외래어를 포함하는 신어는 57.5%에 달한다. 한자어는 외래어보다는 덜 생산적이거나, 특히 혼종어의 형성에 생산적으로 참여하여, 혼종어까지 고려하면 54.4%로서, 외래어와 별로 차이가 없다.

2) 고유어는 5.1%밖에 되지 않으며, 혼종어를 고려해도 전체 신어의 21%밖에 안 된다.

3) 신어에서 외래어를 포함하는 단어가 전체 신어의 57.5%나 된다는 사실은 최근의 신어 형성에서 외래어가 활발하게 사용됨을 보여주는, 신어의 가장 특징적인 양상이라 하겠다.

2. 신어의 형성과정

1) 신어 형성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방식은 합성이다 (37.9%). 최근으로 오면서 합성에 의한 신어 형성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합성이 이루어질 때 구성요소의 형태가 변형을 겪는 일이 파생 등 다른 경우에 비해 많다.

2) 차용되는 단어도 전체 신어의 20%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어 화자들이 외래어를 사용하여 만들어내는 신어들도 상당하다(분석 대상 외래어 491개 중 45.6%).

3) 새로운 형식이 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감탄사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국한된다.

4) 고유어의 경우에는 파생이 가장 활발한 생성방식이며, 한자어와 외래어에서는 합성이 가장 활발한 생성방식이다.

3. 신어의 내적구성

1) 신어 중에는 합성어가 42.2%로 가장 많다. 단일어는 21.2%에 달하나, 고유어 7개를 제외하면 대부분 차용어이다.

2) 외래어에서 파생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9%밖에 안 되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한국어 화자들이 외래어 어근에 외래어 접사를 결합하여 신어를 만들어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3) 신어에 있어서도 접미사에 의한 신어 형성이 생산적이며, 한자어 접사에 의한 파생이 압도적이다. 고유어 접미사로는 ‘-짱’(28개)이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있으며, 한자어 접미사 중에서는 ‘-족(族)’이(93개), 외래어 접미사 중에서는 ‘-파라치’(26개)가 가장 생산적이다.

4) 비통사적 합성어로 된 신어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어’로서의 자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오류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은 보완은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주제어(Key words): 신어(new words), 단어형성(word-formation),  
어종(etymology), 형성 과정(productive process),  
생산적 접사(productive suffix)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국립국어원 (1999) 『표준 국어 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 (2002) 『신어 2002』.  
국립국어원 (2003) 『신어 2003』.  
국립국어원 (2004) 『신어 2004』.

2. 논문 및 단행본

- 구본관(1999) 「과생접미사의 범위」, 『형태론』 1권 1호, 1-23, 박이정.
- 김정은(1995) 「현대 국어의 단어 형성법 연구」, 『한글』 228, 123- 157, 한글학회.
- 김희영(1999) 「현대국어의 신어형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남기삼·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노명희(2006) 『최근 신어의 조어적 특징』,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의 유형분류 및 생성원리」, 『국어학』 33, 295-325, 국어학회.
- 박종순(2003) 「신어 형성의 양상과 특성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용찬(2002) 『신어 2002』, 국립국어원.
- 백영석(2001) 「신조어 조어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두산.
- 송기중(1992=1993) 「현대국어 한자어 형태론」, 이병근, 채완, 김창섭 편(1993) 『형태』, 367-440, 태학사.
- 송원용(2000) 「현대국어 임시어의 형태론」, 『형태론』 2권 1호, 1-16, 박이정.
- 이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분석』, 국립국어원.
- 이호승(2004) 「단어형성법의 분류기준에 대하여」, 『어문학』 제85집, 85-108, 형설출판사.
- 임지룡(2002) 「현대 국어 어휘의 사용 실태와 조어론적 특성」, 『배달말』 30, 41-67.
- 정호성(2000)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원, 55-72.
- 전명미(2005) 「현대국어 신어 형성 양상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영

남대학교 대학원.

최장수(2002) 「국어 신조어의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허 응(2000)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A Study on the Word-formation of New Words in Modern Korean

Jeon, Myeong-Mi·Choi, Dong-Ju

The pro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w words in <New Words> releas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between 2002 and 2004. For this purposehen the frequencies of these new word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ost productive origin of new words is foreign words, and the most productive mechanism of word formation is compounding. 2) The origin of foreign words is mostly English, and about half of them were formed by Korean speaker using English morphemes. 3) The words which use Chinese letter are also productive. 4) In the process of compounding the forms are often contracted, and non-syntactic compound words were also formed, though not frequent. 5) The most productive suffix was ‘-jok(族)’, and the derivation by suffixes whose origins are Chinese was most productive.

This study analyzed only new words in Korean, using statistical approach, and tried find out where the foreign words were formed through interne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t this point.

전명미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소 : (우)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 (학교) 053-810-2110, 핸드폰 : 011-9560-6944

전자우편 : mm1979@hanmail.net

최동주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우)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 (연구실) 053-810-2125, 핸드폰 : 016-9812-2125, 팩스 : 053-810-4602

전자우편 : [djchoi@yu.ac.kr](mailto:djchoi@yu.ac.kr)

이 논문은	2007년 4월 27일	투고하여
	2007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6월 30일	간행함